(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79輯

함안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7. 7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대 한 주 택 공 사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目　次

Ⅰ. 조사개요 3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4

1. 함안군의 자연·지리적 환경 4

2. 함안군의 고고·역사적 배경 6

1) 함안군 역사 개요 6

2) 함안군의 역사관련 문헌자료 11

Ⅲ. 조사내용 14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4

1) 무릉산성(漆原 城山城) 15

2) 용산리고분군 15

3) 칠원향교 15

4) 칠원읍성 16

5) 덕연서원 16

6) 덕원서원 17

7) 무기리 주씨고가 17

8) 무기연당 17

9) 용정리지석묘 17

10) 예곡리지석묘 18

11) 오곡리지석묘 18

2. 고고 분야 18

3. 함안군의 사회·민속, 지명유래 20

1) 조사대상지역(칠원면 구성리) 개관 20

2) 민속과 문화행사 21

3) 칠원면 구성리의 지명전승 22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2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참고문헌 24

도 판 25

첨 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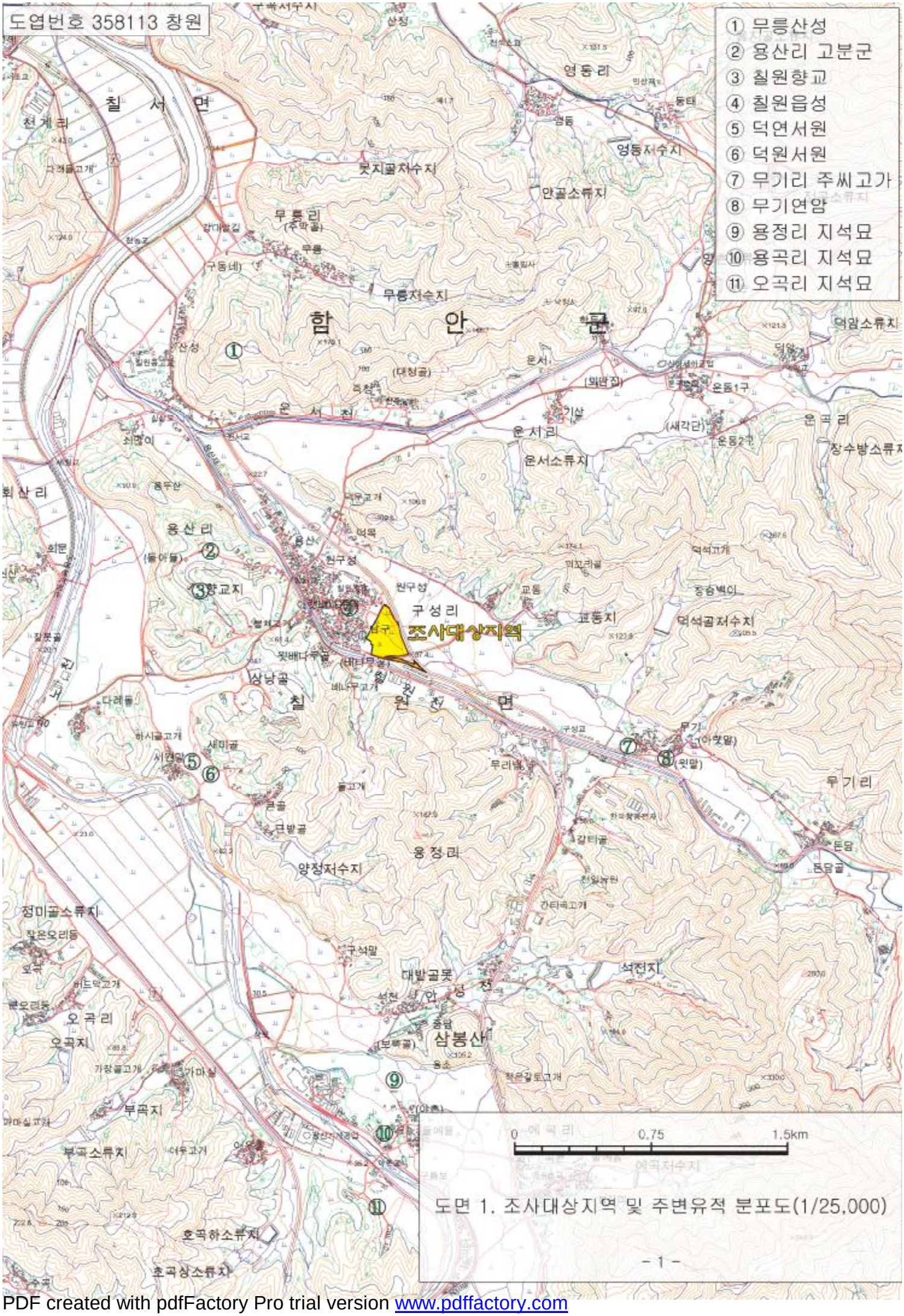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2**

圖 版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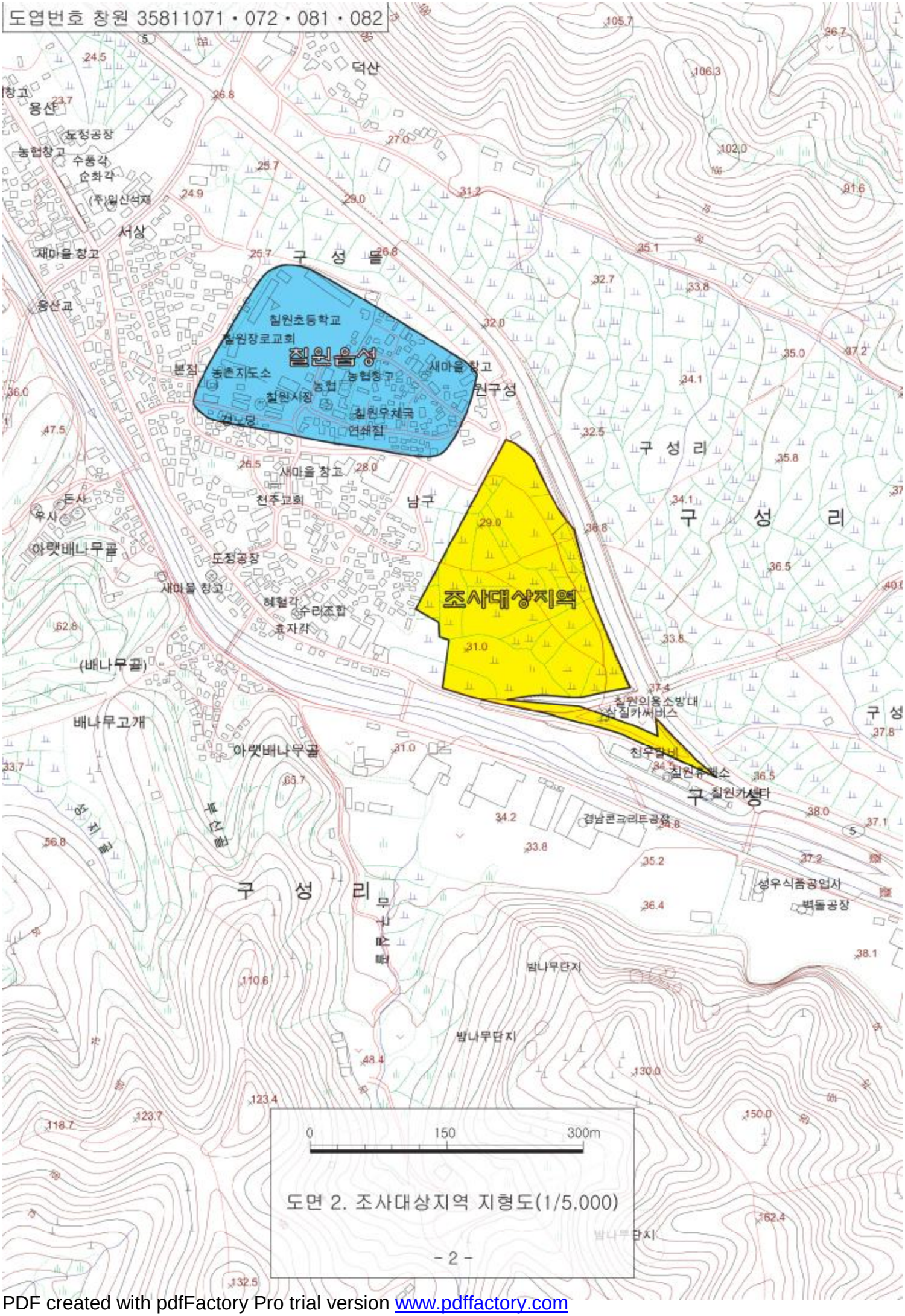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북동→남서**)** **27**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남서→북동**)** **27**
도판 **3.** 조사대상지역 근경**(**북→남**)** **28**
도판 **4.** 조사대상지역 내 보호수 전경**(**서→동**)** **28**
도판 **5.** 유물수습지점**(P2,** 남서→북동**)** **29**
도판 **6.** 유물수습지점**(P2,** 북동→남서**)** **29**
도판 **7.** 조사대상지역 내 수습유물**(**도기류**)** **30**
도판 **8.** 조사대상지역 내 수습유물**(**자기・옹기류**)** **3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Ⅰ. 조사개요

■ 조사명 : 함안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우리 연구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예정인 “함안군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 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의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향을 수립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사업대상지역 전 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고문헌 및 기존에 발간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을 단일지구로 설정하고 전 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지표에서 유물이 채집될 경우 현장상황 및 수습지점의 **GPS**좌표를 도면에 기재하였다.

■ 조사지역 :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36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41,561.4**㎡**(12,572**평**)**

■ 조사기간 : **2007**년 **6**월 **21**일 ~ **2007**년 **7**월 **20**일**(**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사전조사 : **13**일 / 현장조사 **2**일 / 자료분석·정리 및 보고서 작성 : **15**일

■ 조사의뢰자 :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정우열**(**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장**)**
· 조 사 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김미경**(**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경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정용남**(**동아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 **2**년**)**
배태욱**(**동아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 **2**년**)**
조재윤**(**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2**년**)**
김병규**(**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2**년**)**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1. 咸安郡의 자연·지리적 환경

함안군(咸安郡)은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창원시와 마산시, 서쪽은 의령군과 진양군, 남쪽은 고성군, 북쪽은 남강과 낙동강을 경계로 창녕군과 의령군에 각각 접하고 있는 阿羅加耶의 오랜 역사를 지닌 古都로 가야시대의 고분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지형을 살펴보면, '南高北低'의 지세를 보이는 분지지형으로서 북쪽과 남쪽은 각각 낙동강과 남강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이며, 남쪽과 동쪽은 **600m**가 넘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부에는 舲航山**(744m)**, 烽火山**(649.2m)**, 西北山**(739m)**, 匡廬山**(720.2m)**, 天柱山**(640m)**, 五峰山**(528m)**이 솟아 있고, 서부에는 防禦山**(530m)**, 동부에는 爵隊山**(648m)**과 武陵山**(744m)**, 그리고 중앙에는 紫陽山**(402m)** 등이 남쪽과 동쪽 주변에 잇닿아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낙동강과 남강연안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농경에 유리한 대지와 편리한 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려산과 여항산에서 발원하여 남강으로 北流하는 咸安川(일명 검암천 또는 대천)을 비롯하여 광려천 주변에 해발 **10m** 내외의 침식분지인 평야지대가 비교적 넓게 펼쳐져 있지만, 낙동강과 남강이 범람할 경우 저습지가 되는 낮은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1] 분지 가운데로 함안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하천주변으로 해발 **10m**도 안되는 평야지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2] 이 때문에 함안군의 중심부인 가야읍 일대는 낮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배후의 고산지대로부터 남쪽과 동쪽으로 낮은 능선들이 여러 가닥 흩어져서 뻗어 내려간다. 능선들은 동으로부터 차례로 道項里·末山里 능선, 新暗里 능선, 伽耶里 능선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된 능선들의 특징은 저지대에서 올려다보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해발 **50m** 안팎의 얕은 구릉지들이라는 점이다.[3]

이처럼 남고북저의 분지지형을 중심으로 함안군에는 **3**개의 주하천이 흐르고 있다. 함안천(중앙을 관통)·광려천(동쪽)·석교천(서북쪽)이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북동쪽 경계부분에는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있다.

---

1) 함안분지의 내부는 新期河成層의 谷間平野와 해발 **10m** 내외의 넓은 충적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나, 이 평야지대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함안천을 따라 축조한 인공제방에 의해 농경지로써 확보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우수기에 남강과 낙동강의 물이 범람하게 되면 이 지역일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습지가 되었던 지역으로 당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장애를 주는 지형적 요소였던 것으로 짐작된다.(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咸安 道項里古墳群Ⅰ』, **1997.**)

2) 함안군의 지형적 특성상 서북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해발이 낮은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다가 남강유역에 접한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과 낙동강유역에 접하고 있는 칠서면, 칠북면 일대의 낮은 지대에는 충적평지와 저습지가 발달하게 된다.(咸安郡誌編纂委員會,『咸安郡誌』, **1997.**)

3) 昌原大學校 博物館,『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Ⅰ)』, **1992.**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또한 남강이 함안지역의 북서부에서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법수면에 이르러 다시 동쪽으로 꺾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데, 이 유역 주변으로 좁고 긴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4] 그러나 이들 두 강은 낮은 구배로 인한 느린 유속 때문에 큰 비만 오면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수가 잘 빠지지 못하므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가야읍, 산인면 등의 저지대가 홍수피해를 입곤 하였다.

함안군의 지질형태는 경상계 신라통의 퇴적암이 주를 이룬다. 토양은 대체적으로 구릉 및 산악지이지만 창녕군과 의령군의 경계를 이루는 낙동강과 남강유역은 하천 범람지로서 비옥한 충적토 및 회색 사질토양을 이루고 있다. 특히 남강하류의 법수면 일대는 저구릉지로서 암쇄토, 산성의 갈색 삼림토 및 양질의 황색토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창원쪽의 천주산과 작대산 일대는 구릉 및 산악지대이고 칠원면, 칠서면, 구마고속도로 서쪽 지역과 군북면 동북부, 대산면 일대는 내륙 평탄지 및 곡간지로서 회색토 및 충적토, 양질 내지 식질토양이다.[5]

기후는 지형적으로 한반도 동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관계로 북쪽의 대륙성 한대기류와 남쪽 바다의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평균 기온이 13℃ 정도로 비교적 따뜻한 편에 속하며,(또한 주변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탓이기도 하다) 연강수량은 약 1,283㎜ 정도로 한반도 전역의 1,300㎜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세력과 해양성 한대 고기압세력의 영향으로 인해 6월에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7~8월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잦은(연강수량의 50%가 6~8월의 3개월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가을과 겨울에는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집중호우성 성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大陸盆地上의 지형적 여건과 海洋性氣候의 특성이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함안군의 주산업은 낙동강과 남강 주변에 발달한 비옥하고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한 곡물농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창원시와 마산시 등의 배후도시로 수박·참외·방울토마토·오이 등 시설원예농업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터 칠서지방 산업단지 조성 및 4개의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공업부분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특히 금속조립·자동차 부품의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통은 동에서 서로 뻗은 남해고속도로 및 북에서 남으로 뻗은 구마고속도로와 동서로 영·호남 지방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가 중앙을 관통하는 등 비교적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함안군의 면적은 417㎢로 경상남도 면적의 3.9%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군청이 소재한 가야읍 말산리를 비롯한 '1읍 9면 241개동 770반이고 가구 수는 25,296세대에 인구는 64,867명이다.(2007년 5월 통계현황)[6]

---

4)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報告書』, 1998.

5) 昌原文化財硏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1995.

6) 함안군청 <홈페이지 인구 통계자료>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2. 咸安郡의 고고·역사적 배경

1) 咸安郡 歷史 槪要

(1) 선사시대부터 아라가야까지

함안군 일대의 기후·지형적인 요소들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하였으며, 이러한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적지 않게 발굴,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지석묘는 함안면, 칠원면, 군북면 등지에 널리 분포하며 그 분포 지역과 양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의 활발했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단지 당시의 여건상 농경지와 취락지로 이용되던 장소는 지금의 저습지가 아닌 해발 **20m~25m** 이하의 평야나 낮은 구릉의 경사지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

이후 삼한시대의 함안군과 관련된 기록은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3**세기 경 한반도 남부에 분립하였던 여러 소국들에 관한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弁辰韓 **24**국 중의 하나인 '弁辰安邪國'으로 비정되며(함안에 있었던 '阿羅加耶'로 비정)[8)] 이 외에도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함안군은 본래 '阿尸良國'이었으며, '阿那伽耶'라고도 했다"라고[9)] 기록되어져 있다. 『三國遺事』에서도 五伽耶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라고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위치를 지금의 함안군으로 비정함에 있어 다른 異見이나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3**세기까지 한반도의 영남지방은 弁辰韓 **24**개 소국을 비롯한 여러 작은 정치세력들이 분립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4~5**세기를 지나면서 이들 중 몇 개의 소국이 세력을 확장하여 '백제'나 '신라', '오가야국'(혹은 육가야국)으로 통합되어 갔다. 여기서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의 경우, 남쪽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산자원 및 외래의 문물이 쉽게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대외교섭에 있어서 육상과 해상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 천연적인 자연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가야제국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유리한 여건 하에서 성장하였던 함안지역의 安邪國 즉 초기 아라가야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국가형성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였던 '鐵'의 생산이다.

지질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대 국가형성 또는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질 좋은 '鐵'이 생산되었다

---

7) 昌原大學校博物館,『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Ⅰ)』, **1992.**

8)『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참조.

9)『三國史記』卷三十四 < 雜志>第三 地理一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는 점이다. 현재 함안 인근의 대표적인 鑛山으로 '咸安鑛山'이 있다. 지금의 함안분지에서 진동만의 해안으로 통하는 길목주변의 여항리에 위치하며 주로 구리·은 등을 생산한 광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쪽 고개 너머 군북지역의 郡北鑛山·南鮮鑛山·京那郡北鑛山 등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철이 당시 인접한 樂浪郡, 帶方郡을 비롯하여 日本과 중국에까지 수출되는 중요한 교역품이자 국력의 원천으로서 이후 가야제국으로 발전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안지역이 아라가야로 성장한 뒤, 남부 가야연맹을 주도하면서 인접한 신라와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여 군사적 대립까지 하게 되는 국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가야제국으로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주변지역 해상세력과의 관계이다.

고대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 이전, 경남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에 대한 기록은 주목할 만 하다. 이 포상팔국은 그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쳤으며, 당시 삼한사회를 거쳐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있던 가야연맹체나 신라와도 충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은 포상팔국이 당시 이미 상당한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三國史記』에 浦上八國과 가야·신라의 대립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10]) 이 8國 중 현재 그 지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곳은 4國이며[11] 이들 4개국이 함안군과 인접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두 세력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교류 내지 충돌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증명하듯『三國史記』의 곳곳에 포상팔국과 가야와 신라사이의 충돌이 기록되어져 있다.[12] 이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내륙 세력인 가야, 신라와의 대립과 포상팔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가는 과정과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이상의 대립은 시기상으로 볼 때 주로 2~3세기에 집중되어져 있다) 포상팔국과 가야, 신라의 대립은 신라 奈解尼師今 때의 竭火城 전투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포상팔국이 신라와 치른 竭火城 전투(이후 문헌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쟁 후 상당한 타격을 입어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였거나 멸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고비로 가야연맹체나 신라에 편입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셋째, 이 시기 辰韓의 宗教儀禮를 단편적이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변진한의 종교적인 의례에 관해서는 문헌상에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다. 단지 중국의『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韓條에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제사방식이 다르다"라는[13] 기록이 있어, 변한에 어느 정도 독자적인 제사체계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14] 이로 볼 때 당시의 여타 국가들의 제천

---

10)『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第八 勿稽子條 참조.

11)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에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들로 8개의 국가 중에서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은 4곳이다. 이를 살펴보면 骨浦國, 柒浦國, 古史浦國, 史勿國으로 지금의 마산만(또는 창원), 진동(또는 칠원), 고성, 사천에 각각 해당하고 있다.

12)『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 秋七月朝 참조.

13)『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행사와(고구려의 동맹이나 부여의 영고 등)같이 하늘 또는 조상을 모시는 부족관련 제천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弁辰韓과 비슷한 시기 馬韓의 경우를 볼 때, "國邑에 '天君'이 있어 제천의식을 주관하였다"라는 기록이 『三國志』 <魏書> 東夷傳條에 보이고 있으며[15] 이러한 제의구조 또는 체제를 갖춘 종교의례를 '蘇塗'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확한 명칭이나 관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삼한의 소국형성 과정에서 이에 속했던 변한도 '蘇塗形 祭天儀式'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러한 삼한 소국사회의 제천의식은 이른바 蘇塗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도는 아마도 소국 형성과정에서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사회통합력을 강화하는 중요하고 강력한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社會·政治體制를 바탕으로 하여 가야제국은 최소한 4세기 대까지는 신라와 그 영역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웠을 정도의 성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의 왕권과 군사력은 아직 매우 미약한 단계였고, 또한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로 近肖古王(재위 346~375)이 먼저 한반도의 낙동강 방면을 확보하게 되어 南方境域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에 해당되므로 신라와는 비슷한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安羅·加羅·卓淳 등에 존재하던 가야 소국들은 백제권에 직접 편입되었거나, 간접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당시 강성한 백제의 정치력·군사력에 의한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더 큰 문제는 4세기 말 이전의 가야제국은 아직 군장사회에 머물러 있던 시절로[16] 그 응집력과 결속력 부족이라는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4세기 말을 거쳐 5세기 초가 되면 이러한 양상에 다소의 변화가 발생한다. 즉 당시 가야제국을 대표하던 금관가야 외에도 대가야·아라가야를 중심으로 모인 가야제국의 전쟁규모가 군사력 1만명 수준을 넘어 신라를 강하게 압박할 정도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백제를 제압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의 廣開土王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廣開土王은 신라와 연합하여 가야연맹체의 군사력을 와해시키는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이 전쟁의 패배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패자였던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대치하여 전투를 치를 정도로까지 성장하였던 점은[17]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5세기의 변화 속에서 이전 가야세력의 주도권 및 정치적 중심지가 금관가야로부터 高靈과 咸安으로 세력권이 이동하였던 것이다. 이 중 고령지역의 大伽耶가 지금의 경남 북부를 대표하고, 함안지역의 阿羅伽耶는 경남 남부를 대표하면서 상호 대등한 세력분포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18]

---

14) 宋華燮,「三韓社會의 宗教儀禮」,『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15)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상략)……國邑 各立一人 主祭天神國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하략).

16) 金泰植,『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7) 『廣開土王碑文』 十年 庚子條 참조.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한편 이러한 5세기의 큰 변화를 거친 가야제국의 소국들은 당시의 첨예화되었던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 신라와 백제, 왜라는 삼각관계의 이해관계에 당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기록들은『日本書紀』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49年(249) 新羅征討條에 보면, "(상략)……함께 卓淳國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比自㶱(창녕으로 추정)·南加羅(김해로 추정)·㖨國(경산으로 추정)·安羅(함안으로 추정)·多羅(합천으로 추정)·卓淳(대구지역으로 추정)·加羅(고령으로 추정)의 7국을 평정하였다……(하략)"라는 기록이 있다.[19] 또『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23年 春 正月條에는 "23년(562) 봄 정월, 신라가 공격하여 任那官家를 멸망시켰다.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임나가 망하였다고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임나이고, 별개로 지칭하면 加羅國·安羅國…(중략)…모두 10國이다"라는 기록도 보인다.[20] 이 시점에서 특히 백제가 安羅로 進駐하여 자국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던 직접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라의 자주적인 태도에 의해서 무산되자 급기야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백제세력의 진출과 관련된 국제회의 기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日本書紀』卷17 <繼體皇后> 23年(529) 春 3月條에 보면, "(상략)……이에 안라는 새로 高堂을 건립하고 (여기에) 勅使를 인도하여 올라갔는데, 國主는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고, 국내의 士人으로서 미리 堂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하나 둘 있었으며, 백제사신 將軍君 등은 당 아래 있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2~3차례 모의하였다……(하략)"라는 기록도 보인다.[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국제적 외교관계가 안라국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김해지역의 금관가야가 쇠퇴한 이후 5~6세기에 걸쳐 경상도 남부지방에 존재하던 가야세력을 주도하였던 것이 安羅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상태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다. 즉 대가야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6세기 중엽까지 8~10개의 소국이 분립된 상태로 존재해 6세기 초와 같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가 法興王代에 이르러 정치적 안정과 문화의 발전, 경제력·군사력이 강화되는 등 내외적 팽창기를 맞이하여 西進策을 펼치자 安羅는 더 이상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라에 완전히 병합되고 말았다.(『三國史記』<地理地>의 기록 참조) 이로써 고대 弁辰 24국의 하나로 시작하여, 후반기 가야세력을 대표하였던 安羅는 결국 신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시련을 맞았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멸망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기록은 없다. 단지 신라가 한강유역 경영을 끝낸 시점(558년 이후)에서부터 남부지

---

18) 昌原大學校 博物館,『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Ⅰ)』, 1992.

19)『日本書紀』卷第九 <神功皇后> 四九年 新羅征討條.
(상략)……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 比自㶱·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 七國……(하략).

20)『日本書紀』卷第十九 <欽明天皇> 二十三年 春正月條.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 一本云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중략)…合十國.

21)『日本書紀』卷第十七 <繼體皇后> 二十三年四 春三月條.
(상략)……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謨謀乎堂上……(하략).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역 장악력이 백제보다 우위를 점하던 시기에 가야제국에 대한 압박과 회유책이 병행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가야제국의 소국들이 차례로 병합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결국 大加耶의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안라국 등 가야제국의 **10**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22]

(2) 통일신라에서 근·현대까지

『三國史記』<地理志>의 기록에 의하면 오랜 역사를 지닌 아라가야를 신라 法興王이 병합하고 '郡'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여기에 지방 군사조직 **10**停의 하나인 '召三停'을 설치하였다. 이후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 때 전국에 실시하였던 '**9**州 **5**小京'의 행정구역개편 및 정비와 함께, 두개의 속현('玄武縣'과 '宜寧縣')을 관할하게 되었다.[23] 이 행정체계는 고려시대 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아[24] 景德王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 없이 통일신라 전반 및 고려시대 초까지 오래 동안 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고려초기에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牧으로 나누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成宗 **2**년, **983)** 그러나 당시의 강력한 지방 豪族勢力들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독립적인 호족들을 겨우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道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고려의 지방제도는 완성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통일신라 때 이루어 진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한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함안군은 먼저 成宗 **14**년**(995)**에는 咸州로 개칭하고 **10**道制가 실시되어 기존의 **12**牧이 **12**州 節度使로 개칭되어 '咸州刺史'로 되었다가, 顯宗 때에는 金州(지금의 김해시)의 屬郡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明宗 **2**년**(1172)**에 監務[25]가 설치되었으며, 恭愍王 **23**년**(1373)**에 이르러 縣人 周英贊의 女息이 明나라에 들어가 황제의 寵姬가 되어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郡으로 승격하게 된다.(이 시기부터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방군현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초기에 이르러서도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단지 '咸州'라는 명칭만 확정되었을 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후 燕山君 **11**년**(1505)**에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이듬해 **9**월에 다시 군으로 강등된다. 그리고 선조 **32**년에는 鎭海縣에 복속 되었으나 광해군 **9**년**(1617)**에 다시 분리되고, 인조 **17**

---

22) 가야제국 특히 아라가야의 멸망과 관련한 기록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法興王 때이지만 연도상으로 볼 때, 眞興王代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3)『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참조.

24)『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참조.

25) '監務'란 高麗時代 때 아직 縣監을 두지 않았던 작은 縣의 행정책임자를 말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년(1639)에 다시 진해현에 복속되었다가 1639년 진해현에서 재분리 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인근한 지역들과 통폐합의 행정개편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 먼저 대한제국의 光武 10년(1906)에 실시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漆原(漆吐·漆堤·漆原)을 통합하여 비로소 지금의 함안군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14년 3월에는 상봉면, 하봉면, 사봉면이 진주에 환속되고 함안군은 11개 面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해방이후, 1954년에 군청이 함안면에서 지금의 가야면으로 이전하였으며, 1970년 가야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등의 개편으로 함안군은 1읍 9면의 행정체제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咸安郡의 역사관련 文獻資料

이상에서 살펴 본 함안군과 인근지역의 명칭 및 행정구역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관련 文獻資料를 통해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史料 『 』 廣開土王 年 庚子

10년 庚子(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男居城을 지나 新羅城에 이르자 왜인이 그 성안에 가득하였다. 바야흐로 (고구려) 군대가 이르자 왜적이 스스로 물러났다…(중략)…安羅人戍兵이 新羅城을 쳐서 빼앗았다……(하략).[26]

史料 『 』 魏書 東夷傳 弁辰條

(상략)……변진의 狗邪國, 변진의 走漕馬國, 변진 安邪國…(중략)…변진과 진한은 모두 24국이나 된다. 大國은 4~5천 家이고, 小國은 6~7백 家로 총4~5만 호이다…(중략)…변진은 辰韓 사람들과 뒤 섞여 살며 城郭도 있다.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다. 언어와 法俗이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모두들 문의 서쪽에 竈神을 모신다……(하략).[27]

史料 『 』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年

奈解尼師今 14년(209) 가을 7월, 바닷가의 여덟 나라가(浦上八國) 연합하여 加羅를 공격하니, 가라는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 이벌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출격하여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천 여 명을 잡아 돌아 왔다.[28]

---

26) 『廣開土王碑文』 十年 庚子.
十年 庚字 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중략)…安羅人戍兵 拔新羅城 □城……(하략).

27)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상략)……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중략)…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중략)…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하략).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史料 『　　』 　雜志 地理

함안군은 法興王이 대군을 동원하여 阿尸良國(일명 '阿那加耶'라고도 한다)을 없애고, 그 지역을 군으로 만들었던 곳인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2개이다. 玄武縣은 원래 召乡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召乡部曲이다.[29]

史料 『　　』 　志 第 地理

함안군은 원래 아시량국(일명 '아나가야'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군으로 만들었으며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成宗 14년(995) 함주자사로 하였다가 顯宗 9년(1018)에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 본 주에 예속시켰으며, 明宗 2년(1172)에 감무를 두었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이곳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로 가서 궁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知郡事로 승격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金羅'라고 부른다.[30]

史料 『　　』 　·　·　·　·　·

〔四隣疆界〕동쪽으로 창원부(匡山) 경계까지 25리이고, 남쪽으로 진해현(碓山村) 경계까지 27리이며, 서남쪽으로 고성현(陽田) 경계까지 30리이고, 서쪽으로 진주(於束峴) 경계까지 31리이며, 서북으로 宜寧縣(鼎巖津) 경계까지 38리이고, 북쪽으로 신번현(尺堂津) 경계까지 30리이며, 북쪽으로 영산현(道興津) 경계까지 30리이고, 동북으로 칠원현(於嶺峴) 경계까지 28리이다.

〔建置沿革〕본래는 아시량국, 일명 '아나가야'라고도 하였는데, 신라 法興王 때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고,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成宗 14년(995)에 함주자사가 되었다가, 顯宗 때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되어 金州(지금의 김해)에 예속시켰다. 明宗 때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고을사람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에 들어가 궁인이 되었는데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 하여 군으로 승격 시켰다. 본조에서는 그대로 따랐다.(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다) 弘治 乙丑(燕山君 11년, 1505) 6월에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丙寅 9월(中宗 元年, 1506)에 다시 군으로 내렸다.

〔郡名〕阿尸良· 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輿地勝覽에 기록)·巴山.

〔形勝〕낙동강의 楓灘이 그 북쪽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여항산과 파악산이 남쪽에 鎭山이 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합포와 잇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의령의

---

28)『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 柰解尼師今 十四年條.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29)『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玄武縣 本召乡縣 景德王改名 今召乡部曲.

30)『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咸安郡 本阿尸良國(一云 阿那加耶) 新羅法興王滅之 以爲郡 景德王改今名 成宗十四年 爲咸州刺史 顯宗九年 復今名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 周英贊之女 入大明爲宮人 遂陞爲知郡事 別號金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경계와 접하였는데, 여기에는 작은 산들의 봉우리와 언덕으로 접하여 서로 이어져 있으며 넓고 습한 들녘이 뻗어 있다.

〔城郭〕 군이 된 처음에는 城池가 없었다. 正德 庚午(成宗 5년, 1510) 여름에 三浦의 왜인들이 난을 일으켜 熊川 등의 성이 함락되자, 조정에서는 군이 또한 바다와 멀지 않으니 築石하라고 명하였다. 성의 둘레는 5천 1백 6십척이며, 높이는 13척, 甕城이 3곳, 曲城은 10곳을 두었다…(중략)…嘉靖 乙卯(明宗 10년, 1555) 여름에 또 호남에서 倭變이 일어나자, 다시 郡城을 복구, 수리하였는데, 성의 둘레가 7천 3척이며…(중략)…높이는 13척이었다. 무릇 5백 4곳의 雉가 있었으며, 성 둘레 못(池)의 깊이가 6척이고 너비가 12척이었다. 남·동·북 세 곳에 각각 문이 있었다…(중략)…성 안에는 우물이 75개가 있었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烽燧〕 파산봉수 : 군의 남쪽 竝谷에 있다. 성에서 15리 쯤 떨어져 있으며, 남으로는 진해현의 加乙浦에 응하고 북으로는 의령현의 可莫山에 응한다……(하략).[31]

史料 『 』 咸安

咸安郡 : 동쪽으로 창원부 경계까지 25里이고, 서쪽으로 진주 경계까지 31里이며, 남쪽으로 진해현 경계까지 27里이고, 북쪽으로 의령현 경계까지 38里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864里이다.

〔建置沿革〕 원래 아시량국(일명 '아나가야'라 한다)이었는데, 신라 法興王이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군으로 만들었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成宗 때에 咸州刺史로 만들었고, 顯宗이 지금의 명칭으로 복구하여 金州(지금의 김해시)에 예속시켰다. 明宗은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고을 사람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 궁인이 되어 寵愛를 받는다는 것으로써 군으로 승격하였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였다.

〔郡名〕 阿尸良·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라 하였다.

〔城郭〕 邑城 : 석축이다. 둘레는 5,160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烽燧〕 巴山烽燧 : 남쪽으로 진해현 加乙浦에 응하고, 북쪽으로 의령현 可莫山에 응한다.[32]

---

31) 『咸州誌』 卷之一(四隣疆界·建置沿革·郡名·形勝·城郭·烽燧).
〔四隣疆界〕 東至昌原府界(匡山) 二十五里 南至鎭海縣界(碓山村) 二十七里 西南至固城縣界(陽田) 三十里 西至晋州界(於束峴) 三十一里 西北至宜寧縣界(鼎巖津) 三十八里 北至宜寧新繁縣界(尺堂津) 三十里 北至靈山縣界(道興津) 四十里 東北至 漆原縣界(於嶺峴) 二十八里.
〔建置沿革〕 本阿尸良國 一名阿那伽倻 新羅法興王 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成宗時 爲咸州刺史 顯宗 復今名 屬金州(今金海) 明宗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周英贊之女 入明爲宮人有寵 陞爲郡 本朝因之(載輿地勝覽) 弘治乙丑 六月日 陞爲都護府使 丙寅九月日 還降爲郡.
〔郡名〕 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載勝覽) 巴山.
〔形勝〕 洛江楓灘橫其北 餘航巴嶽鎭乎南 東連合浦 西接宜春 岡阜相屬 原隰廣衍.
〔城郭〕 郡初無城池 正德庚午夏 三浦倭陷熊川等城 朝廷以郡亦距海不遠 命築石 城周五千一百六十尺 十三尺 甕城三 曲城十…(중략)…嘉靖乙卯夏 又因湖南倭變 乃復修繕郡城 周七千三尺…(중략)…高十三尺 凡五百四雉 池深六尺 闊十二尺 有南東北三門…(중략)…城內有七十五井 雖旱不渴.
〔烽燧〕 巴山烽燧 在郡南竝谷 去城十五里許 南應鎭海縣加乙浦 北應宜寧縣可莫山……(하략).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史料 『 』 嶺南 咸安郡

〔建置沿革〕본래는 아시량국, 일명 '아라가야국'이었는데, 신라 法興王 때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고,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成宗 **14**년**(995)**에 함주자사가 되었다가, 顯宗 때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되어 金州**(**지금의 김해**)**에 예속시켰다. 明宗 때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恭愍王 **22**년**(1373)**에 고을사람 周英贊의 딸이 明나라에 들어가 궁인이 되었는데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 본조에서는 그대로 따랐다. 弘治 乙丑**(**燕山君 **11**년, **1505) 6**월에 도호부사로 승격되었다가, 丙寅 **9**월**(**中宗 元年, **1506)**에 다시 군으로 내렸다.

〔郡名〕阿尸良· 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巴山.**33)**

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칠원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칠서, 칠북, 칠원의 **3**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함안분지와의 사이에 화개산**(456m)**, 자양산**(401m)**, 안국산**(343m)**, 용화산**(193m)**이 경계를 이루고, 동쪽으로는 천주산**(688m)**, 작대산**(647m)**, 무릉산**(568m)**이 있어 창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으로는 낙동강을 기점으로 창녕과 경계를 이룬다. 마산시 광려산**(720m)**, 대산**(727m)**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광려천이 칠원지역의 중심으로 관통하여 흐르며 광려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은 들판이 전개되어 과거부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34)** 주변 문화재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5)**

---

32)『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咸安>.
咸安郡 : 東至昌原府界二十五里 西至晋州界三十一里 南至鎭海縣界二十七里 北至宜寧縣界三十八里 距京都八百六十四里.
〔建置沿革〕本阿尸良國**(**一云 阿那伽倻**)** 新羅法興王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改今名 高麗成宗時 爲咸州刺史 顯宗 復今名 屬金州 明宗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 周英贊之女 入大明爲宮人 有寵愛 陞爲郡 本朝因之.
〔郡名〕阿尸良·阿那伽倻·咸州·金羅·沙羅.
〔城郭〕邑城 : 石築 周五千一百六十尺 高十三尺.
〔烽燧〕巴山烽燧 : 南應鎭海縣加乙浦 北應宜寧縣可莫山.

33)『慶尙道邑誌』<嶺南 咸安>.
〔建置沿革〕本阿尸良國 一名阿羅伽倻國 新羅法興王 滅之 以其地爲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成宗時 爲咸州刺史 顯宗 復今名 屬金州**(**今金海**)** 明宗 置監務 恭愍王二十二年 以縣人周英贊之女入 大明爲宮人有寵 陞爲郡 本朝因之 弘治乙丑 六月日 陞爲都護府使 丙寅九月日 還降爲郡.
〔郡名〕阿尸良 阿那伽倻 咸州 金羅 沙羅 巴山.

34) 남재우, 「柒浦國의 성립과 변천」, 『칠원지역의 역사와 문화』, 함안군, **2005**

35) 주변유적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昌原文化財硏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 『阿羅伽倻文化圈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1995. 12**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1)무릉산성(武陵山城-漆原 城山城)

칠원면 소재지의 북쪽에 있으며 山城이 입지한 城山은 匡盧川가의 벌판을 따라 洛東江-合浦灣을 드나들고 성의 맞은 편(西쪽)의 도둑고개를 지나 伽倻·代山을 출입할 수 있는 교통의 삼각지에 해당되는 요충지다. 실제 주변 산성과의 분포관계를 고려해 보면 北西 **2.4km**지점의 安谷山城, 남서 **2.4km**지점의 漆原山城을 연결하는 철옹성을 구축하게 되어 상기한 교통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 여겨진다. 이 성은 성산의 정상부 외곽을 따라 축조된 테뫼식 석축성이다. 성의 평면형은 남성벽이 오목한 반월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며 성이 입지한 구릉은 사면의 경사가 심하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현상으로 보아 경사면에 내탁한 편축식으로 여겨지며 북동측에서는 내외 협축한 부분도 관찰된다. 성의 출입시설인 門址는 북성벽과 동성벽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흔적은 미미하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동측 정상부의 중앙에 있는 우물지를 들 수 있다. 우물지는 지름 **10m** 내외, 깊이 약 **3m** 규모의 원형이며 내면의 외곽에는 혈암, 안산암제의 편평한 할석을 가로뉘어 축조하였는데 갈수기에도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동측 정상부 위에는 일정한 면적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서는 와편이 상당수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성내 곳곳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검출된다.

2) 용산리고분군(龍山里古墳群)

漆原鄕校 북서편 구릉일대에 분포하는 대규모 고분군이다. 전언에 의하면 이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도굴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고분군내는 밭, 과수원, 휴경지, 잡목지와 현대의 분묘가 들어서 있고 도굴갱은 주로 능선의 정상부근에서 확인된다. 도굴갱이 집중 분포하는 정상주변은 휴경상태로 방치해둔 밭과 구릉에 칡덩굴과 잡목이 무성하다. 도굴갱에서 확인된 유구는 석곽묘 위주이며 정선대지에서는 토광묘도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칠원향교(漆原鄕校)

1991년 **12**월 **23**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1**호로 지정되었으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칠원읍지에 따르면 縣의 서쪽에 있던 건물을 **1621**년(광해군 **13**년)에 현의 동쪽 三里許에 移建했다가 **1700**년(숙종 **26**년) 현의 서쪽인 지금의 자리에 다시 이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의 건물구조 및 규모는 알 수 없다. **1906**년(광무 **10**) 칠원군이 함안군에 통합됨에 따라 칠원향교도 함안향교에 병합되었던 것을 **1961**년 칠원 유림들이 뜻을 모아 중수 복원하였다.

이 향교는 外三門, 明倫堂, 內三門, 대성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은 정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인 민도리집 형식으로 전면에 툇마루가 없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초익공계 구조이다.

4)칠원읍성(漆原邑城)

칠원면 소재지인 구성리 칠원초등학교 북동모서리를 에워싸고 있는 평지성이다. 조선시대 칠원면의 방비를 목적으로 축조된 성으로 추정된다. 칠원읍성에 대한 내용은 中宗 25년(1530)에 찬한 《新增東國輿地勝覽》城郭條의 기록에서 최초로 확인되는데, 이는 成宗 12년(1481)에 찬한 《東國與地勝覽》에는 없는 내용이다. 여기서 성의 초축연대와 관련하여 《城州誌》卷之一의 郡城條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城州誌》郡城條에는 함안읍성의 축조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郡城 郡初無城池 正德庚牛夏 三浦倭陷態川等城 朝廷以郡亦距海不遠 命築石城」위 기사내용을 보면 조정에서는 중종 5년(1510)의 삼포왜변 직후에 해안에서 멀지 않은 내륙지에 대해 석성을 축조하도록 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는 앞의 두 《卷覽》이 편찬된 중간시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칠원읍성은 함안읍성의 축조와 비슷한 시기인 중종 5년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중종 25년 사이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칠원읍성은 현재 칠원초등학교의 북측담장에 길이 약 20m, 높이 3m의 성벽이 양호하게 남아있고 동성벽은 학교 본관 증축시 훼손되었다. 서성벽은 한우리당 식당 바깥 담장에서 꺾어져 칠원장터의 어물전과 연접한 서측 외곽담에 일부가 잔존해 있었는데, 2003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읍성의 북문지, 담장 석렬 4기, 건물지 1동, 우물 1기, 추정 도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36)]

5) 덕연서원(德淵書院)

1983년 7월 20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로 지정되었다. 1651년(효종 2년)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에 그 고장 출신 문인으로서 이름을 떨친 주세붕을 길이 기리고자 세운 서원인데, 1676년(숙종 2년) 왕이 사액을 하여 사액서원으로 격상되었다. 1678년에는 특별히 別祠를 지어 배세적, 주박, 황협, 주맹헌 등의 영현을 모셨다. 그 뒤 1869년(고종 6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완전 훼파되었으며, 그로부터 근 100년 뒤인 1964년 지방 유림들의 끈질긴 선현 숭앙사상과 정성에 의하여 오늘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다. 현재 건물은 3칸의 祠宇, 3칸의 神門과 4칸의 雇舍, 5칸의 강당 외에 덕연별사와 外門이 있다.

---

36) 咸安郡·慶南文化財硏究院, 『漆原邑城』, 200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6) 덕원서원(德院書院)

198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38호로 지정되었다. 1692년(숙종 18년) 지방유생의 공의로 차운혁과 차원부, 차포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호남 승평에 오천서원으로 세워졌으나 1806년 성태리로 이건하여 덕원서원이라 하였다. 1869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자진 철폐하였다가 1902년(고종 39년) 성태리 양촌에 복원하였다. 정면 5칸, 측편 2칸의 팔작지붕와가로 초익공과 소로받침을 하였다.

7) 무기리 주씨고가(舞沂里 周氏古家)

1985년 1월 14일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주재성 이래 주씨의 종택으로서 1700년경에 중건되었다. 종택의 정문으로서의 대문과 중문 서실인 감은재 영빈사, 살림채로서의 안채 祠堂인 부조묘가 있고, 동쪽에 함안 舞沂蓮堂과 何換亭, 風浴樓등의 화려한 별당이 있는 규모가 큰 고가이다. 살림채 뒤편에 있는 부조묘는 1728년(영조 4)에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주재성의 기제사를 영구히 받들라는 왕명에 따라 지은 사당이고, 감은재는 주재성의 장남인 주도복의 서실로서 국담문집책판이 보관되어 있다.

8) 무기연당(舞沂蓮堂)

1984년 12월 24일 중요민속자료 제208호로 지정되었다.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조선 후기 연못이다. 1728년(영조 4년)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움으로써 양무원종훈일등공신에 오른 주재성의 덕을 칭송하고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난이 평정된 뒤 도내 사림의 공의로 그의 생가 한쪽 편에 만든 것이다. 이 연당을 이름하여 국담이라 하였는데 주재성의 호는 이에 연유한다.

연당은 직사각형으로 그 한가운데 堂主가 있는데 봉래산을 연상시키는 가산이다. 주위에는 護岸을 쌓고 북쪽에 何換亭, 風浴樓를 지었다. 하환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이고 연당 쪽으로 난간을 설치하였다. 마루는 高說하지 않고 그저 四起한 정도이며 홑처마 기와로 된 팔작지붕이다. 풍욕루는 댓돌을 높이 쌓고 앞·뒤퇴가 있는 3칸 규모이며 역시 홑처마 기와로 된 팔작지붕이다. 이들은 1984년에 정화보수하였다. 연당 서쪽에는 詠歸門이라는 일각문이 있고 서쪽에는 1745년에 건립된 충효사가 자리 잡고 있다.

9) 용정리 지석묘(龍亭里 支石墓)

이 지석묘군은 마산변전소 남쪽의 석전마을안과 농경지상에 분포한다. 지석묘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있는 석전마을은 天柱山 **(**해발 **638.8m)**의 北西西向에 형성된 좁고 긴 골 마을이다**.** 지석묘는 이 골의 길이방향을 따라 모두 **9**기가 분포해 있다**.** 마을에서는 이 지석묘들을 칠성바위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다**.** 이중 변전소 남쪽 농경지상에 **1~4**호 지석묘가 집중분포 하며 마을안의 민가와 농경지상에도 **5**기가 분포한다**.** 유적 내에서 확인된 지석묘들은 그 형식상 蓋石式에 속하는 것들이며 상석에서 성혈은 관찰되지 않는다**.** 재질은 혈암과 안산암으로 대별되는데**, 1**·**7**호가 혈암제 대형 판석으로 만든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지석묘군의 동쪽으로는 마산**-**대구간을 잇는 **5**번국도가 개설되어 있고**,** 북쪽에는 마을사이를 흐르는 하천이 서향하여 匡盧川에 유입된다**.**

10) 예곡리 지석묘**(**醴谷里 支石墓**)**

이 지석묘군은 馬山市 內西邑과의 경계를 이루는 들 한가운데에 형성된 들여울마을과 주변 농경지상에 위치한다**.** 확인된 지석묘는 총 **9**기이며**,** 마을주민들은 이 지석묘를 七星바위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다**.** 이밖에 **1982**년 현재의 들여울가든 옆 농원에서 배수로공사 도중 단도마연토기를 부장한 돌널무덤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원래는 더 많은 수의 지석묘가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돌널무덤에 대해서는 마산대학**(**현 창원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수습**,** 조사되었다**.**

유적의 남서쪽으로는 匡盧山**(**해발 **378.8m)**과 斗尺山**(**해발 **761.4m)**에서 발원한 匡盧川이 낙동강으로 北流한다**.** 이 하천은 상류에서는 대체로 북동향으로 흐르다 유적부근인 馬山市 內西邑 虎溪里에서 유향을 北西로 바꾸어 나가면서 폭 **1km** 정도의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였다**.** 지석묘군은 충적지로 된 이 곡간평야의 중심축 상에 위치하며**,** 그 방향은 匡盧川의 흐름과 일치하는 縱列分布이다**.**

11) 오곡리 지석묘**(**梧谷里 支石墓**)**

이 유적은 남해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가 분기하는 중리입체교차로 북편 **1.5km** 지점의 구릉과 그 서쪽 사면 아래쪽에 위치한다**.** 유적 내에는 모두 **5**기의 지석묘가 분포하는데**,** 능선의 측사면과 정선부에서 구릉의 길이방향에 맞추어 縱列分布된 특징을 가진다**.** 개별 지석묘의 형식은 개석식이다**.** 이 중 구릉 상부에 위치하는 **2**기 중 **1**기에 대해서는 **1994**년 **6**월경 창원대학교박물관 오곡리유적 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굴조사된 바 있다**.**

2. 고고분야

조사대상지역은 칠원**IC**에서 **1041**번 지방국도를 따라 남동쪽으로 약 **3km**정도 떨어진 칠원면 소재지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역은 북동쪽에 위치한 무기리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의 해발 **582m** 산에서 남·서로 뻗어 내린 능선과 남동쪽의 해발 **330m**의 삼봉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 그리고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사이에 동-서로 길게 형성된 곡간지대에 해당하며 현재 대부분 논밭으로 경작 중이다. 조사대상지역의 남쪽에는 칠원천이 북류하여 광려천과 합류해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 곡간지대의 북서쪽에 치우쳐 칠원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지역은 면 소재지의 남동쪽으로 **5**번국도와 **1041**번 지방도가 '**Y**'자상으로 연결되는 사이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지역의 바로 북서쪽에는 **2003**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칠원읍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사 후 복토된 상태이다. 칠원읍성은 성종**23**년**(1492**년**)** **11**월에 축조하였으며 규모는 높이 **11**척, 둘레가 **1660**척이라 하였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志』, 『嶠南誌』 등에서는 둘레가 **1595**척, 높이가 **11**척이며, 옹성이 여섯이고, 우물이 하나, 연못이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칠원초등학교부지에 과거 객사가 있었다고 전하며 초등학교 西北隅 및 칠원 장터 남쪽 민가에 체성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읍성의 북문지, 담장석렬 **4**기, 건물지 **1**동, 우물 **1**기, 도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37)]

조사대상지역은 예곡리에서 연결되는 **1041**번 지방도로를 일부 포함하는 것 외에는 모두 경작지에 해당되며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는 **1982**년 **11**월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수령 **510**년, **GPS**좌표 **: 156.565E/200.614N)**와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팔각정을 설치해 놓은 상태였다. 현장 조사시 농경기로 인해 경작지의 대부분에 물을 대어 놓은 상태여서 지표면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밭으로 경작중인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조사대상지역의 경계부분에 해당되며 총 **3**개 지점에서 소량의 도기편과 옹기편, 백자편 등을 수습하였다.**(**표**1)** 도기편은 조사대상지역의 서쪽 경계지점**(P3)**에서 주로 수습하였는데, 회청색의 색조를 띠는 경질도기편으로 기내면에는 강한 회전물손질에 의한 凹凸面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속심은 암갈색을 띠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편은 조사대상지역 북서쪽**(P2)**의 칠원읍성과 인접한 곳에서 소량 채집하였다. 수습된 백자는 저부 **2**점 외에는 모두 동체부편이다. 저부편 중 굽 전체가 잔존하는 백자는 죽절굽의 형태를 띠고 기면은 유약이 일부분에만 발려 있다. 또한 소성상태 역시 양호하지 못하며 내면 바닥에는 가는 모래받침이 확인된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내에서 삼국시대의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인근의 칠원읍성 조사당시 삼국시대 문화층이 확인된 바 있고, 조사대상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정도 거리의 칠원향교 북서편 구릉일대에 삼국시대 고분군인 용산리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의 존재도 배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대상지역의 대부분이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어 전 구간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과 소량으로 수습된 유물을 통해서 조사대상지역 전체의 문화유적의 유존여부 및 그

---

37) 咸安郡·慶南文化財硏究院, 『漆原邑城』, **200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성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조선시대에 축성된(成宗**23**년, **1492**년) 칠원읍성이 조사대상지역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5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금번 지표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채집되었기 때문에 읍성과 관련된 당시의 생활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표 **1]** 유물수습지점 상세표

연번	GPS좌표	조 사 내 용
P1	156.632E 200.506N	조사대상지역 남쪽 경계지점 밭. 도기편, 옹기편, 백자편 소량 수습.
P2	156.504E 200.734N	조사대상지역 북쪽 경계지점의 밭과 공지일부. 도기편, 백자저부편, 백자동체부편, 옹기편 수습.
P3	156.437E 200.595N	조사대상지역의 북서쪽 경계부분의 삼각형 밭. 도기편 다수, 옹기편 소량 수습.

3. 함안군의 사회·민속, 지명유래

1) 조사대상지역(칠원면 구성리) 개관

칠원면(漆原面)은 郡의 동단에 위치하고 동쪽은 의창군 북면, 남쪽은 마산시, 서쪽은 산인면, 북쪽은 칠서면과 칠북면에 닿아 있다. 면적은 **50.54**㎢이며 **5,545**세대에 인구 **15,450**명(**2006**년 **12**월 현재)이다. 원래 칠원현청이 있었으므로 현상리면(縣上里面)이라 하여 용전(龍田)리 등 **14**개의 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함안군에 편입되어 칠원면이 되고, **1914**년 실시된 군면 통폐합으로 인하여 칠서면의 회문리(會文里)와 신산리(新山里) 일부, 내서면(內西面)의 예곡리를 병합하여 예곡, 무기, 구성, 용산, 용정, 오곡, 유원, 장암 등 **8**개의 리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83**년 칠북면의 운서·운곡 등 **2**개리가 새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면의 동부와 서부는 산지이며 중부에 광려천이 흐르고 있다.

[표 **2]** 칠원면 구성리 일원의 문화재 현황**>**[38]

	명 칭	소 재 지	시 대
1	咸安 龜城里 漆原邑城	칠원면 구성리	조선
2	咸安 龜城里 三層石塔	칠원면 구성리 칠원초등학교	고려
3	咸安 龜城里 漆原縣址	칠원면 구성리 칠원초등학교	조선
4	咸安 龜城里 南龜洞 회화나무	칠원면 구성리 844	조선
5	咸安 龜城里 느티나무	칠원면 구성리 359	조선

38) 咸安郡·昌原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咸安郡』, **200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6	咸安 龜城里 校洞堂木	칠원면 구성리 145	조선
7	咸安 龜城里 梨峴堂木	칠원면 구성리 909	조선
8	咸安 舞沂里 遺物散布地	칠원면 구성리 196-1 일대	삼국~조선

2) 民俗과 文化行事

함안군에는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전승되고 있는 것 중에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많은데, 특히 농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많다. 이 중 무형문화재 및 축제, 민요와 설화, 동제의 사례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9]

함안지역의 지역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먼저 <咸安 化川農樂>(도무형문화재 제13호,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화천농악보존회에서 전승)을 들 수 있다. 놀이의 연원은 알 수 없으나, (화천)마을이 생긴지 50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다는 점, 이 지역이 농사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점, 농악놀이 자체에 남아 있는 강한 토속성과 내용에 두레적인 성격이 남아 있는 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서낭당에 풍작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순수한 농촌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전형적인 경남지역의 농악이다. 농악의 짜임새는 맨 먼저 '길굿'을 시작으로 하며, 마지막에 '풍년농사 기원굿'을 끝으로 하는 12부분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이 외 함안군 향토문화축제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阿羅(文化)祭>와 <이수정 낙화놀이>가 있다. <아라문화제>는 매년 11월 초 함안군민의 날을 전후해 가야읍 일대에서 개최된다. 가야읍 지역이 옛 아라가야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옛 문화의 뿌리 및 조상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4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수정 낙화놀이>는 조선중엽부터 매년 4월 초파일 이수정에서 개최되는 함안지역의 고유민속놀이다. 연등과 연등사이에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낙화를 물위에 날리는 일종의 불꽃놀이로, 연원은 조선 宣祖 때 함안군수로 부임하였던 鄭逑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함안지역에는 아직까지 씨름·그네뛰기·소싸움(鬪牛)·백중놀이·두레삼·유두놀이 등 많은 민속놀이들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중 단오날에는 씨름이나 그네뛰기가 성대히 열리며, 소싸움도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지역인 칠원 지역의 문화축제로서 1960년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맥이 끊긴 <삼칠민속줄다리기>가 2005년부터 재현되어 매년 2~3월 중에 개최되는 이 놀이는 삼칠지역(칠원면·칠서면·칠북면)을 대표하는 민속행사로 주민들의 단합과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놀이의 방식은

39) 여기에서는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 <함안군청 홈페이지> 자료 등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윗줄과 아랫줄로 나누어 3전 2선승제로 치루어 지는 것이 특색이다.

이상의 세시풍속 및 전승놀이, 문화축제와 함께 여러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洞祭가 행해지고 있다. 주로 음력 10월 10일이나 정월보름날 老巨樹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가야읍 검암리의 동제를 비롯하여 칠북면 영동리, 대산면 서촌리, 칠서면의 무릉리 등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어떤 곳의 노거수는 설화와 관련되어 있거나 농사의 길흉을 점치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40] 특히 함안면 봉성리의 느티나무는 수나무로서 득남의 영험이 있다고 하여 부녀자들에게 신성시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승되고 있는 설화나 전설의 경우, 가야읍의 <황새의 보은>(옛날 白沙里, 지금의 가야읍 사내리), <효자 (앵두)나무>(가야읍 백산) 전설을 비롯하여, 의원 하영춘과 관련된 <開運之福 전설>, 모은 이오와 관련된 <鰒井의 유래>(산인면 모곡리 장내동마을), <巴山翼蓼 전설>(산인면 신산리), 군북면의 <節婦木(乳木) 전설>, 함안면의 <파수 곶감에 얽힌 전설>(파수리 여항산), 대산면의 <동자삼과 외아들>(서촌리 동촌마을), 칠북면의 <상사나무>(가연리 가동마을), 칠원면의 <장사바위>(장암리) 등이 있고, 이 밖에 <함안차사>나 <부자공씨와 도사>의 전설 등이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구전되고 있는 민요로는 논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농업노동요가 특히 발달하였는데, 벼농사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모내기>노래의 하나인 <정자>를 비롯하여 <망께소리>, <베틀노래> 등이 전승되고 있다.

함안지역 성씨에 대해서는『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慶尙道邑誌』 등의 <咸安> 姓氏條에 기록이 보이는데, 함안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李·趙·蔡·尹·劉·鄭氏가 있으며, 來姓으로는 竹山崔氏·金州金氏가 있고, 續姓으로 姜氏가 있다.[41] 다만『咸州誌』<姓氏條>에는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기록은 동일하지만, 來姓과 續姓이 많이 첨가되어 있다.[42] 이 중 현재에도 가야읍을 비롯한 함안군 전역에 함안조씨가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3) 칠원면 구성리의 지명전승[43]

龜城里는 원래 칠원군 현상리면(縣上里面)의 지역이었는데 칠원군청이 있었으므로 칠원읍내 또는 칠원의 옛 이름을 따서 龜城이라 하였다. 1908년 함안군 칠원면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전국에 실시된 군면통폐합 조치에 따라 덕산리, 남구리, 양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구성리라 하였다. 먼저 이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이름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민족대백과사전』, 1991.

41)『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 및『慶尙道邑誌』<咸安> 姓氏條 참조.

42)『咸州誌』<姓氏條> 참조.

43) 조사지역의 전승지명에 대해서는『한국지명총람10-경남편·부산편Ⅲ』(한글학회, 2000) 및 <함안군청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로 몇 가지 언급, 정리한 것이다.(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상의 자료들을 참고)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에는 구성리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쌀을 이는 조리처럼 생겼다 하여 <조리동> 또는 <조동>이라 이름이 붙여진 마을과 이전에 향교가 있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교동(校洞)>마을이 있으며, 남쪽 밖의 <남구(南龜)>마을, 배나무 곡 동쪽에 있는 <덕산> 또는 <덕무>마을, 남밖 남쪽의 <배나무-곡[梨峴]>마을, 구성리 동쪽의 <성-내> 또는 <원구성(元龜城)>마을 등의 이름이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덕무>마을 서쪽에 있는 모퉁이를 <낙하-모팅이> 또는 <낙하-모롱이>라고 부르며,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고개를 <덕무-고개>라고 부른다. 또한 구성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마구실-골>이라고 부르는데 지형이 호랑이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양이라 하여 <호실-둠 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외에 구성리 동산 위에 <서낭당-터>가 있는데 옛날 이 앞을 지날때면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상 경남 함안군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헌적·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지표조사는 육안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역은 칠원면 소재지의 남쪽으로 형성된 곡간지대에 해당하며 현재 조사대상지역의 대부분이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현장조사시 농경을 위해 논에 물을 댄 상태여서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실시되었다.

2.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소량의 고려~조선시대에 해당되는 도기편과 조선시대의 백자편·옹기편 등을 수습하였다. 수습된 유물의 양상과 조선시대에 축조된 칠원읍성이 조사대상지역의 북동쪽으로 약 **50m**정도 거리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촌락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상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사대상지역 전 구간에대해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유구의 잔존여부 및 성격 등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및 공사진행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참고문헌】

『廣開土王碑(文)』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咸州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嶠南誌』
『三國志』<魏書> 東夷傳
『日本書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金泰植,『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昌原文化財硏究所·昌原大學校博物館,『阿羅伽耶文化圈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5.
韓國古代史硏究會 편,『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1997.
咸安郡誌編纂委員會,『咸安郡誌』, 1997.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咸安 道項里古墳群 Ⅰ』, 1997.
----------,『咸安 城山山城 發掘調査報告』, 1998.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편,『加耶關係文獻考』, 1998.
李柱憲,「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사학술심포지움, 2000.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0-경남편·부산편Ⅲ』, 2000.
國史編纂委員會,『한국사1-총설』, 2002.
慶南發展硏究院 歷史文化센터,『咸安 都市自然公園敷地 內 遺蹟』, 200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圖版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북동→남서)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전경(남서→북동)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3. 조사대상지역 근경(북→남)



도판 4. 조사대상지역 내 보호수 전경(서→동)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5. 유물수습지점(P2, 남서→북동)



도판 6. 유물수습지점(P3, 북동→남서)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도판 7. 조사대상지역 내 수습유물(도기류)



도판 8. 조사대상지역 내 수습유물(자기・옹기류)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table>
<tr><td rowspan="4">사업
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3">함안군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td><td>사업
기간</td><td colspan="3">2007.6.21~2007.7.20</td></tr>
<tr><td>사업지역</td><td colspan="7">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361번지 일원</td></tr>
<tr><td>면 적</td><td>전체사업면적</td><td colspan="2">41,561.4㎡(12,572평)</td><td colspan="2">지표조사면적</td><td colspan="2">41,561.4㎡(12,572평)</td></tr>
<tr><td>사업시행자</td><td>원발주기관</td><td colspan="2">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td><td>지표조사
의뢰기관</td><td colspan="3">기관명: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화번호:055)265-9150~3</td></tr>
<tr><td rowspan="8">지표
조사</td><td rowspan="5">조사기관</td><td>고고·역사
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정우열</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 colspan="2">최경규
김미경
김경탁</td></tr>
<tr><td>민속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정우열</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 colspan="2"></td></tr>
<tr><td>수중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 colspan="2"></td></tr>
<tr><td>고건축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 colspan="2"></td></tr>
<tr><td>자연문화재</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 colspan="2"></td></tr>
<tr><td>조사기간</td><td colspan="7">2007.6.21~2007.7.13</td></tr>
<tr><td>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td><td>고고·역사
분야</td><td>원</td><td>민속
분야</td><td>원</td><td>수중
분야</td><td>원</td><td>고건축
분야</td><td>원</td></tr>
<tr><td rowspan="5">조사
결과</td><td rowspan="2">주변문화재
조사결과</td><td>지정문화재</td><td colspan="7"></td></tr>
<tr><td>비지정문화재</td><td colspan="7">칠원향교(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181호, 약1km이격), 칠원읍성(약 50m 이격), 용산리고분군(약 1km 이격), 용정리지석묘(약2km 이격), 용곡리지석묘(약 2.5km 이격), 오곡리지석묘(약 3km 이격)</td></tr>
<tr><td rowspan="3">사업부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td><td>지상문화재</td><td colspan="7"></td></tr>
<tr><td>매장문화재</td><td colspan="7"></td></tr>
<tr><td>건축물</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민속자료</td><td colspan="7">보호수(느티나무, 수령510년, 1982.11.10지정)</td></tr>
<tr><td colspan="2">조사기관
종합 의견</td><td colspan="8">조사대상지역은 칠원면 소재지의 남쪽에 형성된 곡간지대에 해당되며 현재 조사대상지역의 대부분이 논으로 경작되고 있어 극히 한정된 부분에서만 조사가 실시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고려시대~조선시대에 해당되는 도기편과 조선시대의 백자편, 옹기편 등을 수습하였다. 수습된 유물의 양상과 조선시대에 축조된 칠원읍성이 조사대상지역의 북동쪽으로 50m정도 떨어져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조사대상지역은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촌락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상황으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과 소량으로 수습된 유물로서는 조사대상지역내에 문화유적의 잔존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이나 바로 인근에 칠원읍성이 입지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잔존여부 및 성격을 밝힌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및 공사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8"></td></tr>
</table>

2007년 7월 18일

지표조사기관명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인)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79輯

함안 칠원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7년 7월 18일
발 행 일 / 2007년 7월 19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